

센터링 이론과 대화체에서의 논항 생략 현상

Centering Theory and Argument Deletion in Spoken Korean

홍민표*
(Min-pyo Hong)

요약 본고는 한국어 대화체에서 자주 관찰되는 논항 명사구의 생략현상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약 한시간 분량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을 녹취, 전사하여 획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 대화체에서 논항 명사구의 생략 빈도 및 그 생략 논항들의 지시대상의 유형을 분류한 통계를 제시한다. 나아가 센터링 이론을 적용하여 이들 생략 논항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노력에 있어 청/화자와 일반인을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를 센터링 이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제외된 청/화자 지칭 영형 대명사가 보이는 언어적 단서를 추적하여 제시한다. 또한, 센터의 순위 및 전이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 주제와 주어의 차이, 구문분석의 영향, 그리고 세상지식과의 충돌 등을 중심으로 지적한다.

주제어 센터링, 논항생략, 영형대명사, 지칭해결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classification of unrealized arguments of a predicate, often called zero pronouns, in spoken Korean. Based on the transcript of a one-hour-long dialogue, recorded from public radio stations, I present the statistical data on argument ellipsis in Korean with respect to the frequency of zero pronouns as well as the nature of their antecedents. I go further to review some of the previous efforts to identify the discourse-theoretic functions of zero-pronouns in the framework of Centering Theory, and propose that the zero-pronouns in spoken Korean be divided into center-insensitive vs. center-sensitive classes. I also point out a couple of language-particular idiosyncrasies found in Korean, such as morpho-syntactic elements and encyclopaedic knowledge, that interact with center management in on-going discourse and often lead to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centering rules and constraints to Korean.

Keywords Centering, Argument Deletion, Zero Anaphora, Reference Resolution

1. 서론: 논항 생략과 영형 대명사

구문분석 및 의미분석 시스템에서 명사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문장을 분석하는 최종 목표는 그 명사구의 지칭 대상을 결정하여 전제문장의 의미를 복원하기 위함이다.¹⁾ 따라서 생략논항의 지시대상을 결정하

는 것은 그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작업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생략된 논항의 분포 및 선행사 결정과정에서 종종 이용되는 센터링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생략된 논항의 통사적 범주는 종종 영형 대명사(zero pronoun)라는 문법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가령, 현대 화용론적인 이론으로 한국어의 조음 현상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던 [1]에 따르면 "담화에서 앞뒤의 문맥에 따라 문의 성분이나 문자체가 표현되지 않고 이해되는 -- express 되지 않고 suppress 되는 -- 경우... 이를 생략이라고 보통 부르고 조음의 개념에서는 영-조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영-조음'이라 함은 zero-anaphora의 변

*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120-728)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Myongji University
50-3 Namkajwa-dong, Seodaemoon-gu
Seoul, Korea 120-728
E-mail: mphon@wh.myongji.ac.kr
Tel: (02) 300-1751 Fax: (02) 300-1479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처 특정연구 지원사업 (소프트과학) 중 한국어 대화인지모형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

역으로 보이며, 이는 바로 우리의 zero-pronoun의 지시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화자가 “영희 왔니?”라고 질문을 해올 경우, 다음과 같은 응답은 한국어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 것이다.²⁾

(1) 응, 왔어. 정훈이 하고 같이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늘 같이 다니는 것 같애.

그러나, 이 예문에서 ‘왔어’라는 술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발화에서 ‘같이 와서’ 및 ‘공부하고’ 등의 술어의 주어는 표면에 표시되지 않은 채 대화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생략된 논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이 구문분석 및 의미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의 분포 및 선행사 결정과정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려는 시도들 중에서 형태-통사적인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전반적인 담화응집력 내지는 대화 참여자의 인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센터링 이론이다 (3.4.5). 또한 이를 계통적으로 전혀 다른 언어인 일본어나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연구들이 있어왔다 (6.7). 본고에서는 이러한 센터링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특히 대화체 한국어에서 영형 대명사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을 녹취, 전사하여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와 유사한 기능 및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zero pronouns)의 담화 응집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응용하여 한국어 문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생략 논항의 의미복원 노력에 센터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센터링 이론

근본적으로 서로 유사한 접근법으로 유사한 현상에 대해 전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시도되어 오던 센터링 이론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8,18]에 따르면, 센터링 이론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좀더 포괄적인 인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담화가 크게 세 가지 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언어구조(linguistic structure), 의도구조(intentional structure) 및 초점구조(attentional structure)의 세 층위가 서로 연계되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분석한다. 이 중에서 초점구조는 대화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말하는 사람의 주위가 집중되어 있는 사물 혹은 대상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담화(discourse)의 응집력(coherence)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담화의 응집력을 크게 전반적(global) 응집성과 국부적(local) 응집성으로 구분할 때, 전반적 응집력을 결정하는 데에는 담화 전체의 의도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국부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초점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부적 응집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 바로 센터링 이론이다. 따라서 센터링 이론은 초점구조의 내부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1 센터와 센터의 전이

한 담화는 대개 몇 개의 발화(utterance: U_1, \dots, U_n)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발화(U_n) 속에 사용된 명사구들은 무언가를 지칭하면서 술어와 논항의 의미관계에 따라 그 발화의 전체적인 의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링 이론에서는 이 각 발화에 실현된 개체들의 집합을 그 발화(U_n)의 전향적 센터(forward-looking centers: $Cf(U_n)$)라고 부른다. 이 전향적 센터는 반드시 그 발화 속에 실현(realize)되어 있어야 한다.³⁾ 이 전향적 센터의 원소가 되는 개체들은 상호 현가성(saliency)에 있어 차등적으로 분포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영어의 경우 주어 위치, 혹은 목적어 위치 등의 문법기능(grammatical functions)이 그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요소를 그 발화(U_n)의 선호센터(preferred center: $Cp(U_n)$)라고 부른다. 발화가 계속되면서, 이들 전향적 센터에 속하는 요소 중에는 이전 발화에서 언급되었던 담화개체가 반드시 하나 나타나게 되어있는데, 현재발화는 주로 이 개체에 “대한”(about)

3) 센터링 이론에서 ‘실현’(realization)이라는 개념은 언어적 혹은 음성적 실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지시적(deictic)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화개체(discourse entity)들의 경우에도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9)을 참고하라.

2) 아래 예문은 [2]에서 논의되었던 예문이다.

발화들이기 때문에, 이 담화개체를 이 발화(U_n)의 후향적 센터(backward-looking center: $Cb(U_n)$)라고 부른다. 이 요소를 후향적 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직전 발화에서 도입되었던 개체에 대해 설명해 가면서 대화가 흘러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후향적 센터를 줄여서 '센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떤 발화 속에서 실현되어 나타난 여러 가지 담화 요소를 이러한 방식으로 그 초점유지(center management) 방식에 따라 구분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국부적으로 담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각 발화 사이의 전이방식(transition patterns)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⁴⁾

(표 1. 센터의 전이 방식)

	$Cb(U_n) = Cb(U_{n-1})$	$Cb(U_n) \neq Cb(U_{n-1})$
$Cb(U_n) = Cp(U_n)$	CONTINUING	SMOOTH SHIFT
$Cb(U_n) \neq Cp(U_n)$	RETAINING	ROUGH SHIFT

우선, 센터의 지속(CONTINUING)이란 직전 발화의 후향적 센터($Cb(U_{n-1})$)가 현재 발화의 후향적 센터($Cb(U_n)$)와 일치하면서, 동시에 현재 발화의 후향적 센터($Cb(U_n)$)가 현재 발화의 선호 센터($Cp(U_n)$)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는 발화들의 연속일 경우, 이러한 '지속' 형태의 전이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의 유지(RETAINING)는 앞 뒤 발화의 후향적 센터가 동일한 반면 현재 발화에서 그 후향적 센터가 현재 발화의 선호 센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제를 전환하여 새로운 것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발화와 직전 발화의 후향적 센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센터의 전환(Center Shift)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세분하여 약전환(SMOOTH SHIFT)과 강전환(ROUGH SHIFT)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3]. 나아가, 담화의 진행에 관한 한, 센터를 지속(CONTINUING)하는 것이 유지(RETAINING)하는 것보다 선호되고, 또 유지하는 것이 전환(SHIFTING)하는 것보다 더 선호된다고 하

는 것이 센터링 이론의 중심 주장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센터링 이론의 제 2규칙(Rule 2)이라고 부른다.

2.2 영어 무강세 대명사와 센터링 이론

최소한 영어에 있어서 센터링 이론은 무강세 대명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분포 및 기능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어의 대명사와 센터링 이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담화 개체가 대명사로 실현되는 것은 영어 담화의 국부적 응집력을 강화함에 있어 통사적 기준에서의 주어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사적으로 볼 때, 영어에서 주어의 위치는 전향적 센터 내의 요소들이 선호 센터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그 우선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담화 개체가 대명사로 실현되었는지 아닌지는 후향적 센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의 센터링 이론 제1규칙(Rule 1)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3].

(2) Rule 1: 만일 현재 발화의 전향적 센터 중 하나라도 직후 발화에서 대명사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그 직후 발화의 후향적 센터도 대명사로 실현되어야 한다. (If any element of $Cf(U_n)$ is realized by a pronoun in U_{n+1} , then the $Cb(U_{n+1})$ must be realized by a pronoun also.) (p. 214)

이 규칙이 영어의 대명사에 대해 제한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담화의 일부로 발화된 어떤 문장 U_n 이 단 하나의 무강세 대명사만을 갖고 실현되는 경우와 하나 이상의 무강세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U_{n-1} 의 전향적 센터의 담화개체들 중에서 U_n 에 대명사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들이 담화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력한 제한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유일한 대명사는 U_n 에서 후향적 센터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10]. 그러나 U_n 에 두 개 이상의 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강력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그 대명사 중 하나는 반드시 그 문장(U_n)의 후향적 센터가 된다는 말이다. 그 대명사는 또 직전 발화(U_{n-1})에 선행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11]에서 지적하고 있

4) 아래에 제시된 전이양식 중에서 SMOOTH SHIFT와 ROUGH SHIFT 사이의 구분은 [3]에서 제안한 것으로, [8]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듯이, 동일 담화 단위(Discourse Segment) 내에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발화의 전향적 센터 중에서 가장 상위의 요소가 다음 발화에서 대명사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에서는 이와 같이 센터링 이론에서의 대명사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4,5]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무강세 대명사가 후향적 센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4]는 문법기능순위(Grammatical Function Order)라는 개념과 언어표현 순위(Expression Order)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좀더 현가적(salient)인 요소를 결정하는 기재를 도입하면서 (pp. 479-80),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가 대개는 어떤 발화의 입력 초점 요소(input attentional state) 중에서 최대현가개체(maximally salient entity)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3) 문법기능순위(GF Order): [주어>목적어>목적어2>기타]의 순위 중에서 최상위 요소로 실현된 개체는 출력 초점 요소 중에서 가장 현가성이 높다.

(4) 언어표현순위(EXP Order): [(영형대명사)>무강세대명사>강세대명사>특정명사구>불특정명사구]의 순위 중에서 최상위 요소로 실현된 개체는 입력초점 요소 중에서 가장 현가성이 높다.

(5) 언어표현센터(EXP Center): 최상위 언어표현 요소는 출력 초점 요소에서의 센터를 실현한다.

Kameyama는 나아가 언어표현순위(EXP Order)와 언어표현센터(EXP Center)를 이용하여 대명사의 역할을 센터 확립(Center Establishment) 혹은 센터 지속(Center Chain)의 두 가지 중 하나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즉,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는 직전 발화에서 센터가 아니었던 요소를 선택해서 현재 발화에서 센터가 되도록 해주거나, 혹은 직전 발화의 센터를 현재 발화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8]에 따르면 영어에서 후향적 센터는 대개 대명사로 실현되고,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그와 유사한 형태, 즉 일본어와 같은 경우 영형 대명사로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Cb is preferentially realized by a pronoun in English and by equivalent forms (i.e., zero pronouns) in other languages." (p. 214) 이것은 일본어와 유사한 언어적 구조를 보이는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링 이론을 통해 한국어의 논항 생략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센터링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기 이전에 실제 한국어 대화체에서 논항들이 생략되는 일반적인 관찰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도록 한다.

3. 한국어 대화체에서의 명사구 생략

한국어에서 논항 명사구의 생략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명사구 생략 현상이 대화체에서 얼마나 빈번한지 그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라디오 전화 대화 자료를 분석했다. 교통 방송(FM), 및 KBS 등에서 실시하는 라디오 전화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하고 이들 대화에서 나타나는 생략 및 축약 현상을 분석했다. 전사에 이용된 방법은 우선 [12]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 소리나는 대로 전사를 했다. 여기에는 대화 참여자들의 억양이나 간투사 등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기했다. 이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비단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행 이론이나 기타 대화진행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자전사(literal transcription) 방식과 아울러, 더 나아가 당면과제인 생략 및 축약 현상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어법에 맞게 다시 대화를 가공하는 방식도 취했다. 이는 지나치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한 방법이다.⁵⁾ 이 분석에서는 술어를 중심으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논항 명사구를 정하고,⁶⁾ 그 중에서 실현된 경우와 실현되지 않고 생략된 경우를 구분하여, 전체 대화의 이해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집계한 결과 다음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수는 2,925개였는데, 이 중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약 32% (936개 명사구)로 나타났다. 이는 명사구 생략이 격조사 생략현상과 비슷한 빈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주격 명사구의 생략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 논항은 실현대비 생략 비율로 볼 때 57% 가량

5) 연구를 위해 녹취, 전사된 라디오 대담프로그램 자료는 대개 프로그램 진행자 두 명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전문가 한 사람, 그리고, 그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전화 청취자로 구성되어 있다.

6) 이를 위해 [13]에서 제시하는 하위범주화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 실현되지 않고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전체 명사구의 생략 및 실현 빈도)

		1. 실현된 수		2. 생략된 수		3. 전체	
주어		556	43%	738	57%	1,294	
	2중	33	82.5%	7	17.5%	40	
보격		40	95.2%	2	4.8%	42	
직접 목적어		494	80.9%	117	19.1%	611	
	사역	1	7.1%	13	92.9%	14	
간접목적어		19	36.5%	33	63.5%	52	
관형격 (속격)		171	92.4%	14	7.6%	185	
장소		231	95.1%	12	4.9%	243	
시간		130	100%	0	0%	130	
비교/동등/함께/자격		79	100%	0	0%	79	
서술격명사		149	100%	0	0%	149	
기타 복합 보조사		86	100%	0	0%	86	
전체		1,989	68%	936	32%	2,925	

3.1 주어 생략

이들 명사구가 생략될 경우 어떤 요인들에 의해 생략이 이루어지는지 밝히기 위해, 이들 명사구 중에서 필수격이라 할 수 있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를 그 지식적 속성 및 언어환경적 요인에 따라 분류한 결과 다음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주어 명사구 생략 환경 및 실행사 유형)

	1	2	3	4	5	6	7	8	계
자동사	58	37	78	6	4	63	2	12	260
타동사 (목적어 생략)	40	28	16	1		2		2	89
타동사 (목적어 실현)	140	98	73	5		26		11	353
계	238	163	167	12	4	91	2	25	702

(1. 청·화자; 2. 일반인; 3. 기연급표현 1; 4. 기연급표현 2; 5. 질 내 특정 어휘로 알 수 있는 경우; 6. 담화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우; 7. 5항이 재차 생략된 경우; 8. 6항이 재차 생략된 경우)

이들 생략된 요소들이 지칭하는 선행사의 지식적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바로 앞 절이나 또는 동일 담화 단위(discourse segment) 내에서 전에 언급된 적이 있는 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자 및 화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주어로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칼럼1, 청·화자)와 일반인을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담화 전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담화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선행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6의 경우가 청자 및 화자를 지칭하는 명사구의 생략보다도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위 표에서 '기연급표현2'는 '기연급표현1'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전자는 해당 담화 단위 하나정도 앞선 문장에서 선행사를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동일 담화단위 내에서 바로 앞 문장에서 그 선행사를 찾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 주변적 환경 이외에도 그 주어가 나타나도록 요구하고 있는 용언의 종류를 분류했다. 특히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을 기준으로 그 환경을 구분한 결과,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목적어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에 주어 명사구가 생략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적어와 주어가 동시에 생략될 경우 그 구분해석상의 중의성을 회피하려는 화자들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생략된 논항의 지칭 대상별로 본 생략예문이다.

(6) a. 대화 참여자

A/B: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C: 예, 월계동 사는 이양순인데요.

b. 일반인

A: 예, 근데, 깨끼라는 말이 뭔 말인가?

B: 깨끼, 깨끼 저고리, 깨끼, 깨끼 치마, 그러나요?

A: 옷감을 얘기하는 건가요?

c. 기연급표현

B: 근데, 관례복을 빌려주기도 해요?

C: 아하유, 그런 거는 없어요.

B: 없어요? 근데, 관례복 같은 건 참 아깝
더라고요.

한 번 입고 나면은... 뭐, 한 번 더 갈
것도 아니고...

d. 담화전체

B: 예, 그거(관례복) 하려면은 얼마나 든
데요?

C: 그거, 물빨래 같은 거는 좀 싸고요.

B: 다 틀려요? 그래요?

3.2 목적어 생략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의 생략 현상도 주어명
사구와 비슷하게 그 지칭 대상 및 언어적 환경을 규
명해 보았다. 다음은 그 분포를 요약한 것이다.

〈표 4. 목적어 명사구 생략 환경 지시 대상 유형〉

	1	2	3	4	5	6	7	8	계
주어 생략	1		49	4		40		4	98
주어 실현			9	2		8			19
계	1		58	6		48		4	117

목적어 명사구가 생략되는 경우에 한가지 주목할만
한 점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목적어가 생략되
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주어도 동반해서 생략된
다는 사실이다. 즉, 3번 항목에 있는 바로 앞 문장,
혹은 상위절에 선행사를 두고 있는 경우, 주어가 생
략된 환경에서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49 문장이
확인된 반면, 주어가 실현된 채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9 문장에 불과했다. 즉, 주어를 실현시킨 채
목적어를 생략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6번 항목(담화 전체를 통해서만 선행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서도 그 편차는 두드러진 현상으
로 목격되고 있다.

3.3 요약

한국어 대화체 문장에서 명사구가 생략되어 나타나
는 환경 중에서, 대화 참여자(청자 및 화자)와 일반인
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이전 발화에서 언급된 표
현들이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문장구성에서 필수격이라 할 수 있는 주어와 목적어

논항에 국한할 경우, 한국어 논항 명사구의 생략은
그 선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7) 대화체에서 생략된 명사구의 지칭 대상별 유형
 - a. 대화 참여자: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청자
및 화자로서, 복수 참여자를 포함.
 - b. 일반인: 특히 3인칭의 경우이며, 불특정 다수를
나타냄. (영어의 they, we, you에 해당)
 - c. 기 언급 표현: 바로 앞절이나 또는 동일 담화 단
위(Discourse Segment) 내에 그 선행사를 갖
고 있는 명사구.
 - d. 담화 전체 주제 관련 표현: 선행 명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전체 담화의 유형이나 내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한 경우.

이들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의 지칭 대상을 그 종류
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가 있다.

〈표 5. 생략된 주어 및 목적어의 지칭대상별 빈도〉

	대화 참여자	일반인	기 언급 표현	담화 전체	기타	계
주어 (%)	238 (34)	163 (23)	181 (26)	116 (17)	4	702 (100)
목적어 (%)	1		64 (55)	52 (44)		117 (100)
계 (%)	239 (29)	163 (20)	245 (30)	170 (21)	4	819 (100)

따라서 생략된 명사구들 중에서 화자나 청자를 지
칭하는 경우, 또는 3인칭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지
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전체 필수논항
명사구 중 약 30%에 불과하며, 이는 모두 영어의 무
강세 3인칭 대명사와 비슷하게 담화 상의 센터를 유
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기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한국어 영형 대명사와 센터링 이론

센터링 이론의 설명범위 안에 놓이는 영어 무강세
대명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실제 대화자료 상에 나타나
는 논항생략 현상과 관련하여, 센터링 이론으로 포착
할 수 있는 담화응집력 유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

는 한국어에 센터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어 영형 대명사와 관련하여 센터링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로 점검해 보면서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와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지칭 대상의 다양성

센터링 이론이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과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가 모두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대화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센터링 이론의 분석 영역 내에 있는 영어의 대명사는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 (혹은 생략된 명사구의 위치를 구분적으로 점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어떤 문법 요소)와 우선 그 지칭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일화 방식으로서, 영어의 경우에는 대명사에 인칭 및 수의 정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칭 대명사로 실현되는 논항들이 한국어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생략되어 영형태(zero form)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생략된 논항 명사구들을 모두 영형 대명사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한국어에서 영형 대명사는 모두 그 지칭대상에 상관없이 센터링 이론의 설명적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둘째, 분리처리 방식으로서, 형태상으로 동일한 영형태(zero form)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지칭 대상에 따라 분리하여, 가령, 청/화자 혹은 일반인을 지칭하는 경우의 영형 대명사는 센터링 이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경우의 영형 대명사만을 센터링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일화 방식을 염두에 둔 시도로 [1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형 대명사를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몇가지 점에서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본다. 우선, 그럴 경우, 센터링 이론의 공간을 이루는 기본 정리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까지 센터링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논항이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는 현상은 담화 상의 국부

적 응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영어 대명사의 용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을 지칭하는 명사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도 대화의 센터 유지와는 크게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것 중에서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생략되어서 문장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의 경우 그 선행사를 복원해 낼 수 있는 일정한 언어적 단서들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그러한 언어적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는 센터링 이론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논항이 생략되는 환경을 언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센터링 이론의 적용 영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화자 지칭 영형 대명사와 공기현상을 보이는 언어적 단서들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5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관찰은 센터링 이론을 통해 설명하려는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접근법 중에서 분리처리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대화참여자(화자 및 청자)와 일반인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발화에서 언급된 표현이 생략된 경우만이 센터링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센터링 이론을 통해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대화체에서의 전체 생략된 논항 명사구 중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4.2. 전향적 센터의 순위

다음으로 전향적 센터 순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전향적 센터 속에 있는 요소들은 그 문법 기능에 따라 대개 다음과 같은 순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

7) 물론 (8)에서 담화개체(discourse entity)의 실현(realization)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된다면, 나머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영형 대명사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실현"의 종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기연급표현이 생략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주어>직접목적어>간접목적어>보어>부가어

영어 무강세 대명사의 담화 응집 기능을 말해 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순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현행 발화에서 주어로 실현된 요소는 다음 발화에서 후향적 센터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이 후향적 센터는 대개 대명사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센터링 이론에서는 영어 무강세 대명사의 선행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 (9) a. John went to his favorite music store to buy a piano.
Cb: ? Cf: {John>store>piano}
- b. He had frequented the store for many years.
Cb: he=?Cf: {he>store}
- CONTINUING: he=John
- c. He was excited that he could finally buy a piano.
Cb: he=?Cf: {he>piano}
- CONTINUING: he=John
- d. He arrived just as the store was closing for the day.
Cb: he=?Cf: {he>store}
- CONTINUING: he=John

발화(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명사 he의 지시대상이 무엇인지 결정되는 과정에는 전향적 센터 목록의 상호 서열이 가장 높은 개체가 다음 발화의 후향적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a)에서 주어로 실현된 'John'이 다음 발화에서 센터의 역할을 하고, 또 대명사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RETAINING이나 SHIFT보다는 CONTINUING이 가장 선호되는 전이 방식이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센터링 이론을 일본어에 적용하여 연구한 [6,7]에 따르면, 일본어의 경우 전향적 센터 목록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⁸⁾

(10) 주제(Topic)>공감도(Empathy)>주어>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기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에는 주제표지(-wa)가 삽입된 요소가 대개 문두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문장의 주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가 전향적 센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라고 보고 있다. 실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1) a. Taroo-wa Hanako-o eiga-ni sasoimasita.
-Top -Acc movie-to invited
"Taroo invited Hanako to the movie."
Cb: Taroo Cf: {Taroo>Hanako}
- b. 0 itiniti-zyuu nani-mo te-ni tukimasendesita.
all-day anything-even hand-to attached-not
"(Taroo) could not do anything all day."
Cb: TarooCf: {Taroo}

(b)의 영형 대명사 "0"가 Taroo와 Hanako 중에서 누구를 지칭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a)의 Cf 목록에서 Taroo가 Hanako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0"는 Taroo를 지칭하게 되고, 그것이 (b)의 센터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제안들이 있어왔는지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진해 보도록 하자. 비교적 본격적으로 센터링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격조사 및 특수조사의 담화기능을 살펴본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국어 전향적 센터 목록 순위 결정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p. 659)

- (12) Cf Ranking Algorithm in Korean
- a. the entity realized by the subject NP if that NP is not nominative-marked
- b. the entity realized by the object NP if there is one and if that NP is not accusative-marked
- c. an element of Cf(Un-1) that is realized in Un.

주어 중에서 주격조사(이/가)가 표시되지 않은 요

8) 아래 일본어의 전향적 센터목록 순위에서 '공감도' (empathy) 라는 용어는 [14]의 용어로서, 화자나 담화 참여자가 담화에 표현된 지시체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서서 기술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종래의 시점(viewpoint/perspective)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15]에서 찾아볼 수 있고, "화자가 어떤 사건의 참여자와 다양한 정도로 동일시하는 것" (the speaker's identification in various degrees with a participant in an ev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가 최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목적어가 실현된 경우 그리고 그 목적어가 격표시(을/를)를 갖지 않는 경우에 두 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조사로 알려진 주제표시 '-은/는'이 항상 선호센터를 실현시킨다는 분석을 제시하는 [2]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향적 센터 목록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3) No의 제안

주제 > 무조사 주어 > 무조사 목적어 > 기타

주어나 목적어보다 상위에 있는 요소로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순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렇듯 주제표지의 담화적 기능을 중시했던 [2]의 분석과는 달리, [11]에 의하면 한국어의 경우, 단순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도 화용론적인 개념인 화자나 청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한국어의 전향적 센터 목록의 서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시한 바 있다. (p. 196)

(14) {화자, 청자}>주어>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기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에는 우선적인 서열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해당 발화의 화행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그에 따라 화자가 더 우선하는지 청자가 우선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2]와 [11]의 분석을 비교해 볼 때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화자 지칭 논항의 처리문제가 한 가지이고, 또 주제요소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두 번째 문제이다. 우리는 앞서 청/화자 및 일반인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센터링 이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지칭 대상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모든 영형 대명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일화 방식의 일종으로 보이는 [11]의 주장은 문법적 개념과 화용론적 개념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어,' '목적어' 등의 통사적 개념과 '청자' '화자' 등의 화용적 내지 의미적 개념이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향적 센터의 목록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논의한 분리처리 방식을 따라 청자 및 화자를 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선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에

서 전향적 센터의 목록 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은 대개 순수 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들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⁹⁾ 혹은,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경우의 명사구 생략은 영형 대명사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주어진 발화의 주제를 표시하는 주제표지 '-은/는'의 담화응집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보다도 오히려 주제가 전향적 센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분석하고 있고, [11]에서는 주제 요소의 담화적 기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 전체 발화의 주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어와 비슷한 일본어의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주제요소의 역할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그' 혹은 '그녀' 등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16]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주제어' 사이의 전향적 센터목록 위계상의 차이가 애매하다고 주장하면서, "센터링 이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Cf [전향적 센터] 목록의 우선순위가 한국어 대용과 생략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p. 351)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11]의 연구에서 '주제' 요소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16]의 연구에는 객관적인 검증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여부를 좀더 경험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주제와 주어 사이의 상대적 순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주어 가 한 발화 안에서 동시에 실현되어 있는 경우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향후 발화의 센터 확립 혹은 센터 전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5) Un-1 철수는 활달한 아이였다.

9) 물론 일본어의 경우 공감도(Empathy) 개념을 전향적 센터 순위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를 화용론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일본어의 경우 일정한 어휘적 단서들이 주어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 Cf: {철수}Cb: ?
- Un 철수는 반에서 민수가 제일 좋았다.
Cf: {철수 > 민수} Cb: 철수
CONTINUE
- Un+1 {pro} 그 다음으로 진수가 좋았다.
Cf: {pro=? , 진수} Cb: pro= 철수
CONTINUE
- Un+2 {pro} 교회에서는 영희가 제일 좋았다.
Cf: {pro=? , 영희} Cb: pro=철수

Un에서 심리술어 '좋다'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어 실현된 주제어 '철수'와 문법적 주어 '민수'의 상대적 위치에 유의하며 살펴보자.¹⁰⁾ Un의 Cf 목록에서 '철수'가 '민수'보다 앞선다고 하면, Un은 CONTINUE라는 전이유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Un+1의 pro는 아직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pro의 선행사를 결정하면서 대개는 CONTINUE를 선호한다는 가정하에 그 pro가 '철수'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Un에서 주제어였던 '철수'가 주어인 '민수'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보자.¹¹⁾

- (16) Un-1 철수는 활달한 아이였다.
Cf: {철수}Cb: ?
- Un 철수는 반에서 민수가 제일 좋았다.
Cf: {철수, 민수} Cb: 철수
- Un+1 {pro} 마음씨가 착했다.
Cf: {pro=?} Cb: pro=민수
- Un+2 {pro} 종이접기도 잘했다.
Cf: {pro=?} Cb: pro=민수

여기에서는 Un의 Cf목록에서 주제요소였던 '철수'와 주어요소였던 '민수' 사이의 상대적 순위가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Un의 Cf 목록에서 '철수'가 '민수'보다 앞선다고 하면 Un의 전이유형은 CONTINUE가 된다. 그러나 이제 Un+1에서는 pro가 무엇을 가리

키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Un+1의 Cb는 '철수'일 수도 '민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을 따라 Un+1의 Cb가 '민수'라고 하면, 그리고 Un에서의 Cf 목록 상에서 '철수'가 '민수'보다 앞선다고 하면, 이것은 RETAIN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SHIFT로 바로 넘어가는 전이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이현상은 센터링 이론의 제2규칙 'RETAIN 보다는 CONTINUE가 선호되고, SHIFT보다는 RETAIN이 선호된다'를 어기게 되고, 또 그 결과로서 RETAIN단계가 없이 SHIFT로 넘어가는 담화는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센터링 이론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상이 된다. 우리의 직관상 Un+1에서의 영형 대명사의 지시대상이 '민수'일 경우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따라서 SHIFT 이전에 RETAIN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는, Un에서의 전향적 센터목록의 우선순위에서 주제어 '철수'보다는 문법적 주어인 '민수'가 더 상위를 차지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앞서 살펴본 (15)에서 알 수 있었던듯이, 주제어가 주어보다 전향적 센터 목록상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의 (16)에서처럼 주어가 주제어보다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주제'와 '주어' 사이에 전향적 센터목록 상의 우선순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전이 유형의 상대성 및 백과사전적 지식과의 충돌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 혹은 생략 명사구의 지칭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속(CONTINUING), 유지(RETAINING) 등의 전이 유형에 의존하게 된다. 즉, 지속의 전이유형을 가장 선호한다는 가정 아래 직전 발화나 현재발화는 동일한 후향적 센터를 갖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대개 영형 대명사로 실현되는 현재발화의 후향적 센터는 직전발화의 선호센터를 가리키게 되고, 따라서 그 영형대명사의 선행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이유형에 대한 센터링 이론의 제약이 단지 '선호 경향'만을 기술하고, 강제력이 없는 규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이 경우, 비언어적 세상지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7) Un-1: 순이는 활달한 아이였다.
Cb: ? Cf: {순이}
- Un: 순이는 영희의 생일 파티에 갔다.

10) 물론 여기에서 '민수'는 '좋다'의 문법적/통사적 주어라고 가정하고 보자. 단, 이 구문에서 '민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주어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센터링 이론에서 전향적 센터 목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문법적 주어 내지 문법적 목적어로서의 성격을 따지는 것이므로 본문의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11) 물론 아래 예문의 경우, 예문 (15)와 다른 영형 대명사 해석을 갖는 이유로, (15)에서는 각 발화의 병렬구조(parallelism) 때문에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가 '철수'를 선호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Cb: 순이 Cf: {순이}영희/파티]
 U_{n+1}: {pro} 예쁜 옷을 입고 갔다.
 Cb: pro=?? Cf: {pro}옷]
 CONTINUING: pro=순이
 U_{n+2}: {pro}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다.
 Cb: pro=?? Cf: {pro}음식]
 CONTINUING: pro=순이

여기에서 pro의 선행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센터링 이론의 제2 법칙에 따라, U_{n+1}에서 지속(Continuation)이 선호되기 때문에, Cb(U_n)=Cb(U_{n+1})이라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pro='순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 발화 U_{n+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어 담화의 전이 유형이 항상 CONTINUING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18) U_{n1}: 순이는 활달한 아이였다.
 Cb: ? Cf: {순이}
 U_n: 순이는 영희의 생일 파티에 갔다.
 Cb: 순이 Cf: {순이}영희/파티]
 U_{n+1}: {pro}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
 Cb: pro=?? Cf: {pro}옷]
 ?CONTINUATION: pro=순이
 ?RETAINING: pro=순이
 SHIFT: pro=영희
 U_{n+2}: {pro}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았다.
 Cb: pro=?? Cf: {pro}음식]
 CONTINUATION: pro=영희

이 경우에는 앞서 (17)의 '-고 갔다' 대신에 '-고 있었다'라는 보조용언만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상 U_{n+1}의 생략된 주어 혹은 영형 대명사는 '순이'보다는 '영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센터링 이론의 주장대로 CONTINUATION이 선호된다는 가정에 의존하여 영형 대명사의 지시 대상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CONTINUE를 가정하면 U_{n+1}의 pro는 '순이'를 지칭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CONTINUING이나 RETAINING보다는 SHIFTING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영형 대명사 해석을 주고있는 것이다. 즉, 센터링 전이 유형에 관한 센터링 이론의 규칙이 단지 선호도에 대한 경향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선호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보조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4. 구문분석 상의 차이점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구문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의적인 경우가 많고, 그 대부분은 영형 대명사의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주절과 종속절에서 두 개 이상의 영형 대명사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다음의 예를 비교해 보자.

(19) U_{n1}: 철수는 활달한 아이였다.
 Cb: ? Cf: {철수}
 U_n: 철수는 (볼 일이 있어) 교수님 연구실에 갔다.
 Cb: 철수 Cf: {철수}교수님]연구실]
 U_{n+1}: 외출중이었다.
 Cb: pro=? Cf: {pro=?}
 ?CONTINUING: pro=철수
 ?RETAINING: pro=철수
 SHIFT: pro=교수님
 (20) U_{n1}: 철수는 활달한 아이였다.
 Cb: ? Cf: {철수}
 U_n: 철수는 (볼 일이 있어) 교수님 연구실에 갔다.
 Cb: 철수 Cf: {철수}교수님]연구실]
 U_{n+1}: {pro1 {pro2 외출중이라고 했다.}
 Cb: pro1=? or pro2=? Cf: {pro1}pro2]
 ?CONTINUING: Cb=pro1=철수
 ?RETAINING: Cb=pro1=철수
 SHIFT: Cb=pro1=교수님

특이 (20)의 경우 pro1은 선행 발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요소의 생략으로 보고, 또 pro2는 '교수님'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를 센터링 이론으로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와 (20)에서처럼 영형 대명사가 중복되어 사용될 경우, 통사구조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전항적 센터의 순위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나아가, 앞서 논의했던 주제의 기여도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요소를 문장의 주제(topic)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이다. 특히, 영형 대명사로 실현된 논항은 의미제약 및 선택 제약을 따라, 용언의 목적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

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사적으로 주제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1) A: (U1)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우리 딸내미가 이혼을 했거든요.

Cb = ?; Cf = {딸내미}

B: (U2) 예, 그런데,

A: (U3) pro [애기]i 하나 있는데,

Cb = 딸내미; Cf = {pro, 애기}

CONTINUE

(U4) **아빠가 pro 데려갔었어요.** - Object pro

Cb = 애기; Cf = {아빠, pro}

ROUGH SHIFT

pro 아빠가 데려갔었어요. - Topic pro

Cb = 애기; Cf = {pro, 아빠}

SMOOTH SHIFT

B: (U5) 예, 예.

A: (U6) 근데, **아빠가 pro 못 기르겠다고 그러고,**

Cb = 애기; Cf = {아빠, pro}

RETAIN

근데, **pro 아빠가 못 기르겠다고 그러고,**

Cb = 애기; Cf = {pro, 아빠}

CONTINUE

(U7) pro 거기 싫다 그래가지고,

Cb = 애기; Cf = {pro}

CONTINUE

(U8) pro 엄마한테 와 있거든요.

Cb = 애기; Cf = {pro, 엄마}

특히 U4에서 생략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영형 대명사(pro)는 의미, 통사적으로 볼 때 '기르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제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직관에 맞는 분석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목적어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할 경우, U3에서 U4로의 전이는 ROUGH SHIFT가 되고, 이는 센터링 이론의 예측에 따르면 결코 선호되지 않는 전이유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4의 pro가 목적어보다 상위(혹은 대부분의 통사적 분석에서 통용되듯이 영형 주제어 Zero Topic의 일종으로서 비논항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할 경우, 최소한 U3에서 U4로의 전이가 ROUGH SHIFT가 아닌 SMOOTH SHIFT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6의 영형 대명사도 동일한 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통사적 구문분석을 어떻게 하는

냐에 따라 센터링 이론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 통사적 분석은 센터링 이론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전이유형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종의 순환성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센터링 이론만을 의지해서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규칙을 제시하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센터링 이론과 별개의 언어적 단서들이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청자 및 화자논항의 경우로 국한하여, 순수한 언어적 기재를 이용하여 그 선행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절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선행사 결정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참고할 자료로 삼고자 한다.

5. 청자 및 화자 논항의 복원과 언어적 단서

5.1.1 서법(Mood)과 화행

청/화자 논항의 생략현상과 관련하여, 형태적 통사적 공기현상에 대한 논의는 일부 언어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가령, [1]에 의하면, 명령문 및 청유문을 표시하는 일부 문장 종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문장에서는 청자 주어나 화자 복수 주어가 빈번하게 생략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고 싶다' 혹은 '즐겁다/기쁘다' 등의 소위 심리적 형용사의 경우, 화자 주어나 청자 주어를 생략시킨다는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청자논항의 생략과 공기하는 형태/통사적 단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청자논항의 생략에는 의문문, 평서문, 명령/청유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법(Mood)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의 관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의문문과 명령/청유문에서 청자 논항의 생략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22) 의문문

a.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b. 어떤 일 하시는데요?

c. 근데, 관례복을 빌려주시기도 해요?

d. 네, 여덟 평 짜리 점포 임대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e. 오늘 '동숙의 노래' 하신다고 그러셨죠?
- f. 딸 시집 보낼 때 우셨어요?
- g. 그래도 처음에 뭐, 무일푼은 아니었겠죠? 조금은 자본이 들었겠죠?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청자 논항 생략 구문은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명령문 혹은 청유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양상을 갖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23) 명령/청유문

- a. 네, 말씀하세요.
- b. 남편께 한 말씀 하세요.
- c. 지금 생각나는 그 때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 d. 건전한 가정을 중심으로 꽃 피는 나라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장 종결어미와 생략논항의 지시대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어학계의 관찰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따라서 표면적인 문장 형태가 생략된 청자논항의 의미 복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이나 청유 등의 의도를 담은 문장이 표면적인 문장형태에 의해서 직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표면형과는 일치하지 않는 간접화행의 방식으로 질문과 요청이 표현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러한 간접화행의 경우에도 청자 논항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를 실제 본 연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4) 간접화행

- a. 네, 아, 예상하시는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셨나부죠.
- b. 남편께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 c. 끝까지 좀, 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e.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 f. 전체를 다 취급하지 마시고, 향기 향수에 관련된 화장품만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질문 화행과 명령/청유 화행에서 주목할만한 표면적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질문의 경우 간접화행

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는 직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명령/청유의 경우 간접화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청자 논항의 생략현상에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의문문과 명령/청유형 문장의 경우 청자 논항의 생략이 빈번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가지 화행이 보이는 공통점으로 [17]이 표상 화행 (representatives), 지시 화행 (directives), 개입 화행 (commissives), 표현 화행 (expressives), 및 선언 화행 (declarations) 등으로 분류한 기준을 따라 살펴 볼 수 있겠다.

Searle에 따르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화행이 바로 지시 화행 (directive speech act) 이고, 또 그 전형적인 예로 요청/청유 혹은 질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화자 생략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문문과 명령/청유문 형식은 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화된 관찰일 것이다. 또는, 일반적으로 전산언어학에서 잘 알려진 화행의 분류 방식을 따를 경우, 주로 정보 요구(ask-ref), 정보 요구(ask-if), 확인요구(request-confirm), 행위요구(request-action) 등의 화행에서 청자 논항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1.2 일치 (agreement) 자질의 역할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화행 개념을 통한 청자 논항의 생략현상 규명 노력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접근법은 주어-동사의 일치(agreement)자질을 통한 형태론적 분석일 것이다. 이는 공기관계(collocational effect) 실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또 시스템에 생략 요소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형태소 정보만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말의 경우, 주어와 동사어미 사이에 일치 자질이라고 밝혀진 존칭표시(honorific marker) '-시'의 유무가 청자논항 복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대화체의 특성상, 지극히 비공식적인 친구간의 대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언어에 직접 반영되어서 쓰이기 때문이다. 청자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논항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동사어미에 존칭어미의 형태로 주어 존재의 표시가 남아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태론적 정보도 청자 논항의 복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가지 특기할 만한 현상은, 청자 논항이 생략된 환경을 주어 대 목적어로 양분하여 분류해본 결과, 목적어 위치에서는 청자 논항의 생략이 현저하게 드물다는 점이다. 이는 주어 논항의 생략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전체 생략된 목적어 논항 117 개 중에서, 청자 및 화자를 지칭하는 경우는 단 한가지 경우만이 발견되었을 뿐이다.¹²⁾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 그 지시대상이 청자나 화자를 가리키는 경우는 드물다는 이러한 관찰을 받아들인다면, 또한 일반적인 대화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청자가 주어로 쓰이는 문장을 발화할 경우에는 그 동사 어미에 존칭표시를 사용한다는 우리말의 문법현상을 가정한다면, 청자 논항이 생략된 구문의 동사 어미부분에는 '-시'와 같은 어미가 존재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자료에서 청자 논항이 생략된 경우에 존칭 어미 '-시'가 발견되었다.

(25) 주어 존칭표시

- a. 꽃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 b. 그래서 의류점을 하시려고 할 때는 지금 점포를 양도하시고 다른 점포로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 c. 저, 하여튼, 좋은 뜻을 갖고 시작 하셨으니까요...
- d.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오염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앞서 살펴본 예문에서도 생략된 청자 논항의 용언 어미에는 존칭표시 '-시'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존칭어미 '-시'의 유무가 청자 논항이 생략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3 주어 존칭 표시의 유형

청자 논항이 생략된 구문 중에서 주어 존칭 표시어미 '-시'의 출현 유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6) 본용언에 표시되는 경우

- a. 오늘 사모곡 하신다 그러셨죠?
- b.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창업하셨네요?

이 경우 생략된 논항이 발견된 해당 절의 본용언 어미에 존칭표시 '-시'가 발견되고 있다.

(27) 보조용언에 표시되는 경우

- a. 꽃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 b. 상당히 좋은 업종을 택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을 갖는 경우 우리말 존대법의 영향으로 보조용언에 '-시'가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였다.

(28) 외포절 용언에 표시되는 경우

- a. 아, [가정에 있는 일반 고객한테도, 아, 주문 받아서 배달 나갈 수 있는] 배달 형태의 꽃가게를 하셔야 됩니다.
- b. 물론 [삼 개월 정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하시구요.
- c. 아, [스스로 만들어서 작품을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 청자 논항이 생략된 절의 용언에는 존칭 어미 '-시'가 발견되지 않고, 상위절의 용언에 '-시'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물론 상위절의 주어도 청자를 지칭하고, 또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29) 기타

- a.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서 화장품 전문점으로 업종전환 한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 b.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경동시장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그걸 구하시가지고, 그

12) 이 관찰은 본 연구에 사용된 라디오 대담자료에 국한된 관찰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주다' '빚다' 혹은 '모시다' 등과 같은 용언은 대화체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청자 논항을 쉽게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 자료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수집된 자료에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문이 발견되었다.

(i) 그것 좀 여쭙보고 싶어서요.

(ii) 실제 오늘 뵈니까요, 더 젊어 보입니다.

이는 단지 특수한 '객체존대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어휘목록에 한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화상황에 따라 그 출현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로 차를 꿰입니다.

- c. 만약에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면은, 인제 화장품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경우에 있는가?

마지막 유형으로, 예외가 되는 현상들을 나열해 보았다. 이 경우, 존칭 어미 '-시'가 나타나지 않은 처자 논항이 주어 위치에서 생략된 경우이다. 대화 이해 시스템 구현에 가장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이지만, 그리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아니다.

칭자를 지칭하는 명사구가 일반 대화체 문장 내에서 생략된 경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소들로서 화행과 주어 존칭 표시의 두 가지를 실제 대화자료를 중심으로 구분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된 처자 논항의 생략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30) 지시 화행(directives)을 갖는 문장에서 본용언, 보조용언, 혹은 상위절 용언에 존칭어미 '-시' (혹은 주체 존대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 생략된 주어 논항은 처자일 가능성이 높다.

6.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명사구가 생략되는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얻을 수 있었다.

(31)

- a. 우리말 대화체에서의 문장의 필수논항은 약 30% 가량 생략된다.
- b. 우리말 주어논항은 실현되는 것보다는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주어논항의 생략이 가장 빈번하다. (약 57%)
- c. 생략된 주어논항 중 칭자나 화자를 지칭하는 논항의 생략이 가장 빈번하다. (약 33%)
- d. 본용언이 타동사인 경우 주어와 목적어가 동시에 생략되는 경우보다는 목적어는 실현되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다.
- e. 한국어의 전향적 센터순위는 주제어와 주어 사이의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 f. 센터링 이론의 설명 범위 안에 한국어의 영형 대명사의 종류는 기언급표현에 대한 대응용법으로 국한되며, 일반인과 대화참여자들 지칭하는 영형 대명사를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g. 센터링 제 2규칙은 세상지식과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 h. 칭자를 지칭하는 주어논항의 생략은 지시성 화행을 갖는 문장에서 본용언, 보조용언, 혹은 상위절 용언에 존칭어미 '-시'(혹은 주체존대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에 빈번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대화체 문장에서 나타나는 논항 명사구의 생략현상에 대해 센터링 이론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나아가, 센터링 이론만으로 영형 대명사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순수 언어학적 대화체 연구와 근본적으로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산언어학적 구현을 염두에 둔 연구로서 향후 꾸준한 자료 획득과 태깅을 통해 한국어 대화체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 나가고, 제시된 규칙들의 구현을 위한 좀더 밀접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장석진 (1984) "지시와 조응." 한글 186: 115-49.
- [2] No, Y. (1991) "A Centering Approach to the *[CASE][TOPIC] Restriction in Korean." *Linguistics* 29: 653-68.
- [3] Brennen, S.E., M.W. Friedman, and C.J. Pollard. (1987) "A Centering Approach to Pronouns," in *Proceedings for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cmp-ig/9410005: 10 Oct. 1994.
- [4] Kameyama, M. (1994) "Stressed and Unstressed Pronouns: Complementary Preferences." in P. Bosch and R. van der Sandt eds. *Foc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stitute for Logic and Linguistics, IBM, Heidelberg. 475-84.
- [5] Kameyama, M. (1985) "Zero Anaphora: The Case of Japanese."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6] Walker, M., M. Iida, and S. Cote (1990a) "Centering in Japanese Discourse."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COLIN90)*. Helsinki. 1-8.
- [7] Walker, M., M. Iida, and S. Cote (1990b)

- "Japanese Discourse and the Process of Center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20.2: 193-232.
- [8] Grosz, B.J., A.K. Joshi, and S. Weinstein (1995)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21.2: 203-225.
- [9] Grosz, B.J., A.K. Joshi, and S. Weinstein (1983) "Providing a Unified Account of Definite Noun Phrases in Discourse."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44-50.
- [10] Allen, J. (1995)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Benjamin/Cummings: Redwood City.
- [11] 최재웅, 이민행 (1999) "초점, 강범모 외 공저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서울. 한신문화사. 157-205.
- [12]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13] 홍 재성 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사전*. 두산동아. 서울.
- [14] 장석진 (1986) "조응의 담화 기능: 재귀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194: 121-55.
- [15] Kuno, S. (1976) "Subject, Theme, and the Speaker's Empathy -- A Reexamination of Relativization Phenomena." In C.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417-44.
- [16] 차건희, 송도규, 박재득 (1997) "한국어 대응과 생략 해결을 위한 센터링 이론의 적용." *제 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부산대학교. 347-52.
- [17] Searle, J. R. (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1-23. Reprinted in *Expressions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19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9.
- [18] Grosz, B. and Sidner, C. (1986) "Attention, Intentions, and the Structur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12.3: 175-204.